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4월 29일

조명, 카메라, 액션! CUOMO 주지사, 뉴욕이 기록적인 분량의 TV 프로그램 제작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발표

뉴욕에서 제작하는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의 수, 기록 갱신 예감

TV PD, 확장된 영화업계 세금 환급 프로그램 덕분에 영화업계가 뉴욕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환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TV 프로그램 제작 부문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입을 모아 "I Love New York"을 외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BS에서 Home Box Office, NBCUniversal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TV 제작업체가 뉴욕을 사업의 본거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만하더라도 19개의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과 5개 방송이 즉시 시리즈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 1년 만에 2개 이상의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이 뉴욕을 TV 프로그램 제작 장소로 선택하여 지금까지의 기록을 갱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20개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2012년 가을과 2011년 봄 사이에 촬영).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이제 영화와 TV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리소스가 있고, 훌륭한 인재가 있으며, 업계에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장소가 있습니다. 새로 확장되고 강화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은 뉴욕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인기 있는 영화 및 TV 세금 환금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임명된 후부터 이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되어 프로그램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Cuomo 주지사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 349개의 프로젝트가 제작되었거나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뉴욕에서 5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확장되고 강화된 프로그램은 뉴욕주 외부의 관심을 끌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른 주에서 5시즌 이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뉴욕주 북부에서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CBS C.E.O. Leslie Moonves씨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가 TV 및 영화 제작에 있어서 매우 친숙한 주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부는 영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장함으로써 뉴욕주에서 수준 높고 급여도 높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입법화되지 않았다면 CBS의 인기 있는 ‘Blue Bloods,’ ‘The Good Wife’, ‘Elementary’와 같은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뉴욕에서 제작되는 2가지의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작과 일자리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주지사와 입법위원의 예지력 덕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최고의 지리적 위치, 제작 시설 및 인재가 시험적 프로그램을 제작할 창의적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 덕분에 더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올해 뉴욕주에서 ABC와 ABC Family를 위한 방송 촬영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Disney-ABC Television Group의 Disney Media Networks 사장 겸 공동 회장 Anne Sweeney씨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이러한 기록은 NBC의 “Tonight Show”가 캘리포니아주 Burbank에서 오는 2월에 Rockefeller Center로 자리를 옮겼으며 NBC 최고의 여름 시리즈물인 “America’s Got Talent”가 뉴저지주 Newark의 New Jersey Performing Arts Center에서 Radio City Music Hall로 이사한다는 몇 가지 중요한 소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merica's Got Talent”가 뉴욕주로 이전함으로써 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각 시즌마다 1억 달러의 새 경제 활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은 ‘Law & Order’와 같은 생생한 현장이나 ‘Smash’와 같은 아름다운 극장가 또는 '30 Rock'을 위한 Rockefeller Center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위한 멋진 촬영 장소를 전통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라고 NBC Entertainment의 Bob Greenblatt 회장은 말했습니다. “뉴욕의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America’s Got Talent’, ‘The Tonight Show with Jimmy Fallon’, ‘The Michael J. Fox Show’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뉴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adway Stages의 Tony Argento는 “이러한 현상은 영화업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활성화되는 도미노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IATSE)의 John Fo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영화 및 TV 세금 환급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의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atrical Teamsters Local 817의 Tommy O’Donnell은 “Theatrical Teamsters Local 817이 누리는 혜택은 수 많은 일자리의 창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Teamsters는 뉴욕주가 영화 세금 환급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준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주마다 유리한 인센티브는 많지만 뉴욕주의 인센티브는

영화업계를 안정화하고 뉴욕주가 TV 제작의 황금기를 맞이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ome Box Office의 C.E.O. Richard Plepler씨도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HBO의 경우 'Girls'와 'Boardwalk Empire'와 같이 많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뉴욕이 핵심적 제작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한 승인은 뉴욕의 최고의 인재, 최고의 배경과 인프라와 어우러져 앞으로도 뉴욕을 최고의 제작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